

# 도, K-콘텐츠 산업화 기반 구축 가속

### 문화체육관광국, 1년간 추진한 문화·관광·체육 분야 주요 정책·성과 발표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용역·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 행정절차 마무리 등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 한 해 동안 문화·관광·체육 전 분야에서 산업화 기반을 다지며 국내외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했다.

전북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은 18일 오전 도청 기자회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년간 추진한 문화·관광·체육 분야 주요 정책과 성과를 발표했다.



이정식 전북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이 18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정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화환경을 조성하고, 전북을 ‘사람이 머무르고 다시 찾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했다”며 “전북특별법에 따른 문화산업 특례를 구체화하고 실행력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용역을 본격 추진하고, 앵커기관 역할을 할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내년 상반기 납입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전주와 익산까지 지구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을 위한 준비도 속도를 냈다. K-POP 아카데미 시범사업에는 50개국에서 558명이 지원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최종 선발된 9개국 20명은 교육과 K-컬처 체험, 음원 발매 등을 진행해 국제적 주목을 받았다.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해 64건

의 제작 성과와 329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거뒀고, 레드콘 음악창작소 지원을 받은 밴드 ‘아우리’는 제36회 유재하 음악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지역 창작 생태계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전통예술 상설공연과 거리극 축제 ‘노상놀이’ 등 총 111회의 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돼 도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됐다.

제15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에는 50개국 3,053명의 작가가 참여하고 10개국 대사가 방문하는 등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전주한옥마을 ‘하얀양옥집’은 개관 1주년 만에 연간 방문객 8만 명을 기록하며 대표 문화 명소로 자리 잡았고,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

대회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전북 관광의 글로벌 위상도 크게 높아졌다. 무주군 무주읍은 UN 세계관광청(UN Tourism)이 선정한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에 이름을 올렸으며, 고창 상하농원은 ‘2025 한국관광의 별’ 지역상생 관광모델 분야에 선정됐다.

체류형 관광 확대를 위해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무주군과 부안군이 야간관광진흥도시로 선정됐고, 야간관광명소 10선이 발굴됐다. 위계이선 사업을 통해서 100여 개 기업, 1,300여 명의 참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전북형 치유관광지 10곳을 발굴했으며, 고창 웰파크시티가 한국관광공사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신규

선정돼 전북 내 글로벌 웰니스 관광지는 총 6곳으로 늘었다.

외국인 전용 전북투어패스 등 신규 관광상품 7종을 개발해 총 14만 매 판매 실적을 기록했고, 제10회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에서는 ‘마케팅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8곳이 개관됐고,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도를 통해 국비 120억 원을 확보했다. 남원시에는 국비 490억 원이 투입되는 국립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사업이 본격화됐다.

전문체육 분야에서는 전국체전과 동계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며, 전북도청 컬링팀은 이탈리아 세계 주니어컬링 선수권대회에서 우승했다.

무주 태권도원 일원에는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센터 설립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전국 규모 태권도 대회 21개를 유치했다.

국가유산 분야에서는 신규 지정·등록 19건을 포함해 총 1,064건으로 확대됐으며, ‘국가유산 돌봄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식 개최와 전국 최초 유족 수당 지급 제도 도입, 국립후배제역사문화센터 건립 예산 확보 등 역사적 가치 정립 노력도 이어졌다.

이정식 국장은 “전북이 문화·관광·체육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 완성도를 더욱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도, 12월 소통의 날 행사 개최

### 도청 직원 9000여명 참석... 미래 제조산업 변화 논의 KAIST 장영재 교수 초청, 제조 피지컬 AI 특강 진행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도청 공연장에서 도청 직원 9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소통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피지컬 AI 육성 전략을 공유하며 미래 제조산업 변화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도청 공연장에서 도청 직원 9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소통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북도가 중점 추진 중인 피지컬 AI 실증 사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 성장 전략이 소개됐으며, 공직자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설명과 토론이 이어졌다.

특강에는 AI·제조혁신 분야 전문가인 장영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가 초청돼 ‘제조 피지컬 AI와 기술 기반 지역 육성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앞으로 피지컬 AI를 지역 산업과 연계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전략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는 앞서 주거복지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은 전북자치도 주택

택전축과,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실태평가 유공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생활환경과 김중만 사무관에 대한 성과 공유도 이뤄졌다.

또한 도청 현안을 적극 추진해 성과를 거둔 부서를 대상으로 한 2025년 4분기 ‘혁신도정상’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최우수상은 정책기획관과 일자리 민생경제과가 수상했으며, 사회재난과, 도로공항공정과, 119종합상황실, 금융사회적경제과, 농식품산업과,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은 우수상을 받았다. /이만호 기자

# 도, 보육사업 발전 정부포상서 ‘대통령 기관표창’

### 기관·개인 합쳐 총 4건 수상... 전국 최다 수상 실적 기록

전북특별자치도가 교육부가 주관한 ‘2025년 보육사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에서 대통령 기관표창을 포함해 총 4건의 정부포상을 수상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포상에서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았으며, 신은옥 전북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국민훈장, 천중운 전북어린이집연합회 사회복지법인분과장은 대통령 표창, 김선우 전주시청 아동보육팀장은 국무총리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기관과 개인을 합쳐 총 4건의 정부포상을 받은 전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상 실적을 기록했다.

아울러 도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등 15명도 교육부 장관표창을 수상해, 전북의 보육정책 성과가 보육 현장 전반에서 폭넓게 인정받았다.

이번 수상은 영유아의 건강할 성장과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을 선정하는 정부 차원의 권위 있는 포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해 온 선도적인 보육정책이 전국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는 민선 8기 들어 전국 최초로 ‘전

북형 무상보육’을 도입해 보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췄다. 올해는 1만1,000여명의 영유아에게 175억원을 지원해 3~5세 유아기 필요경비를 전액 부담하지 않는 무상보육 환경을 조성했다. 아울러 운영 위기에 놓인 소규모 어린이집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추가 지원해 보육 현장의 안정성을 높였다.

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맞춤형 정책도 성과를 냈다. ‘전북형 SOS 돌봄센터’를 통해 야간·주말·긴급 돌봄 공백을 해소했으며, 개소 이후 251건의 긴급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우리아이 발달증진 프로젝트’를 통해 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영유아를 조기에 발굴해 전문가와 연계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 72명의 영유아가 개별 서비스를 받았다.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과 안전관리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5,700여명의 보육교직원에게 처우개선을 지원해 근무환경 개선과 사기 진작을 도모했으며, 어린이집 지도·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석면 제거 지원과 재난 대응 매뉴얼 마련 등을 통해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힘써왔다. /이만호 기자

# 도, 수소경제 시범사업 특례 제도화 머리맞대

### 수소 테스트베드 구축·제도 개선 방향 전문가 의견 공유 등

전북자치도는 18일 전주 그랜드힐스 호텔에서 ‘수소경제 시범사업 특례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과 연계한 수소경제 시범사업 특례의 필요성과 법·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북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추진돼 온 특례 발굴 릴레이 세미나의 마지막 회차로, 수소 상용모델리더를 중심으로 한 실증·산업화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북은 완주를 중심으로 수소 저장용기, 수소상용차, 특장차, 시험·인증 인프라가 집적돼 있어 수소 모델리더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 아래에서는 실차 기반 실증과 복합 실증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과제로 제기돼 왔다.

주제 발표에서 이지훈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수소 시범사업을 단발성 실증이 아닌 생산·저장·충전·운행·검증으로 이어지는 ‘전주 기 테스트베드’ 형태로 제도화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연구원은 시범사업 과정에서 규제 완화와 함께 대체 안전기준을 병행 설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영석 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수소경제 시범사업 특례는 전북특별법 개정의 핵심 입법과제로, 전북이 수소산업의 선도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출발점”이라며, “전문가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특례내용을 보완하고, 중앙부처와 지속 협의해 정부 입법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연말 이벤트로 고향사랑기부 참여 열기 확산

### 도·익산·부안 등 9개 지자체, 답례품 증정·포인트 지급 등

전북특별자치도는 연말을 앞두고 도내 시·군과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이달 28일까지 도청에 고향사랑기부한 기부자 가운데 250명을 추첨해 심리향, 사골곰탕, 꿀 등 지역 특산물을 추가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익산시는 12월 10일부터 31일까지 맥도날드 협업으로 주목받은 익산 고구마를 증량 제공하며, 부안군은 12월 8일부터 19일까지 특장사업 ‘야생별 분봉이 지켜주세요’에 기부한 선착순 200명에게 네이버페이 1만 원 포인트를 지급한다.

이 밖에도 정읍·완주·무주·장수·임실군은 상품권이나 지역 특산

물 세트를 추첨 또는 선착순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남원시는 11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만원 이상 기부자 중 추첨을 통해 ‘명지각 1956’ 숙박권(2인)을 제공하는 등 지자체별 맞춤형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의 주소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원 기부 시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을 앞둔 기부자들에게 특히 실질적인 혜택이 크다.

1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도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기부금의 최대 30% 상당을 지역 특산물 등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만호 기자

완주군 공고 제2025-2341호

## 보전산지 지정(산지구분도)안 공고

보전산지 지정을 위하여 ‘산지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보전산지 지정 대상지 주요내용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역의 번호	구역의 표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전주073	N52-1-5-073	공익용산지

- 근 가: 산지관리법 제4조1항1호 나목에 해당되는 산지
- 지정일: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별도 고시

2. 관계도서 열람 장소: 완주군청 산림복지과
3. 의견 제출기간: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의견 제출방법: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완주군청 산림복지과로 아래사항 등을 기재하여 방문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산지구분도안 공고 및 열람 일정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개인이나 단체에게 개별통지 하지 않습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산림복지과(☎063-290-27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9일 완주군수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